

21세기 한국이 직면한 인구학적 도전*

“고령화 위기”에 대한 두려움

페터 가이(Dr. Dr. Peter Gey),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협력사무소

최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점차 길어지고 자녀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평균 수명의 연장 현상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인구학적 변화다. 나라마다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 된다. 먼저 사망률이 감소함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그 다음 출산율이 감소하고 평균 수명은 길어진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를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aging)”, 14%가 되면 “고령 사회(aged)”,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ultra-aged)”라 규정하는데, 한국은 2026년에 “초고령 사회”가 될 뿐 아니라 고령화 진행 속도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를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다(표 참조).

2003년 태어난 한국 여자 아이의 기대수명은 80.8세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80.7세를 넘어섰다. 그에 반해 남자 아이의 평균 수명은 73.9세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년 낮았다. 그러나 1993년과 비교해 보면 남자는 5년이 더 길어져, 여자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 보다 1년 더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위의 통계 수치는 오래 전부터 알려졌으나 독일처럼 한국도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결과에 대비하지 않았다. 학계와 언론에서는 고령화가 공적 연금과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논쟁했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가 경제의 혁신력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예측하곤 했다. 경제연구소들은 고령화로 인한 연평균 경제 성장이 2006년-2010년의 4.12%에서 2040년에는 1.45%로 둔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 한독상공회의소 잡지 „KORUM“ 기고문, No. 1, 2006년 2월

표. 인구구조 고령화 국제 비교

	도달 연도			증가 소요 연수	
	7%	14%	20%	7% → 14%	14% → 21%
한국	2000	2019	2026	19	7
일본	1970	1994	2006	24	12
독일	1932	1972	2012	60	40
이탈리아	1927	1988	2007	64	19
미국	1942	2013	2028	71	15
스웨덴	1887	1972	2012	85	40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

출처: 최경수 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과제(I), 한국개발연구원, 2003년 12월

이러한 전망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나 여기에 나타나는 인구학적 추세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 전쟁 이후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는 2006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한다. 1960년대 중반 6.0명이던 출생아 수가 현재 1.16명으로 급감했기 때문에 노동 시장에는 퇴직자들이 남긴 빈자리가 점차 커진다. 2050년 까지는 65세 이상과 20-64세의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인부양비(Aged Support Ratio)”가 0.1(2000년)에서 약 0.7로 높아진다. 다시 말해, 2000년에 경제활동인구 10명당 연금수혜자 1명이었다면, 2050년에는 7명당 1명 꼴이다.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최근 두 가지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하나는 ,베이비 붐’ 세대인 연금수혜자 세대를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고령화는 계속 된다는 것이다. 출산율이 다소 높아진다 해도 고령화 속도는 조금 늦추어 질 뿐이다. 두 번째는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전반적인 하부 시장(예: 화물, 서비스 분야, 노동, 자본 및 부동산)에 포괄적이고도 근본적인 조절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앞으로 정년 연장뿐 아니라 철저한 노후 대비를 비롯한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인구 구조가 변함에 따라 여러 면에서 사고의 전환과 적응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령화 위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은 한국 사회가 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적응 메커니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렸다. 그 중 몇 가지만 언급하면, 첫째, 감소하는 경제

활동인구를 보충하기 위한 기본 메커니즘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인적, 물적 자본의 투자 강화로 얻을 수 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자사의 고령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퇴직시키는 제도를 더 이상 오래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기업의 과제는 지속적인 노동력 감소와 근로자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생산 과정과 생산성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개선,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생산 입지를 근로자의 연령층이 (아직) 낮은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공업국가로 옮겨 근로자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 대처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한국은 이미 중·동유럽, 특히 중국과 인도에 대규모 직접 투자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가용노동인구 감소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하기 위해 남녀취업률을 균등하게 하는 일이다. 한국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여성 인구 중 겨우 절반만이 실제로 직업을 갖고 있어 이 점에서 여지가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여성 인구의 약 3/4이 직업을 갖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직업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기혼 남성의 절반은 결혼과 동시에 아내가 가사에만 전념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을 원하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기혼 여성들은 대부분의 경우 나이가 너무 많다고 거절 당하거나 보수가 형편없는 자리만 얻을 수 있다.

끝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영입도 노동력 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대거 몰려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출산율의 감소와 세대 간의 격차, 그리고 높은 이혼율로 인해 머지않아 고령뿐 아니라 초고령 인구의 증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누가 누구를 돌보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노인을 돌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머지않은 장래에 외국 노동력을 유입하여 장기 체류 허가를 내 주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